

1.글로벌 채권

* 국채가격, 개장 초 소폭 상승했다가 전일 9월 美 제조업 지표 호조로 커진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주목받은 데다 회사채 신규 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림세로 전환

* JP모건의 시장 설문 결과에서 국채 약세 전망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국채가 낙폭을 가파르게 함

- 전일 기준으로 채권 수익률 상승을 전망한 응답 비중이 25%로 전주의 20%에서 상승 & 채권 수익률 하락 예측은 25%에서 18%로 감소했으며 중립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

* 오후 들어 가격 고평가 우려에 따른 매도가 이어져 국채가 낙폭을 더 확대

[미국]

2y 0.82% (+3.0bp)

10y 1.69% (+6.4bp)

30y 2.41% (+7.0bp)

[기타 10Y물]

영국 0.78% (+4.6bp)

독일 -0.06% (+3.8bp)

프랑스 0.26% (+3.9bp)

이탈리아 1.30% (+3.9bp)

스페인 0.97% (+4.0bp)

그리스 8.11% (+0.6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美 금리인상 우려 & 영국이 EU과 완전히 단절되는 '하드 브렉시트'에 대한 우려가 가세한 여파로 하락

*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

- 기준금리, 이제 1.5% 혹은 그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경제지표가 연준의 고용과 물가 목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

* ECB가 QE 종료 이전에 채권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움

- 블룸버그, ECB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이 QE 종료 이전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데 비공식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

* 파운드화, 하드 브렉시트 & ECB의 테이퍼링 소식에 한 때 31년 만에 최저 수준(\$1.2720) 으로 하락

- 유로/파운드 환율 역시 1.1409유로까지 추락하며 2013년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

* <유럽 마감> 도이체방크의 반등과 31년 최저치로 떨어진 영국 파운드화 영향으로 수출주 중심으로 일제히 급등

* <상하이 마감> 국경절로 휴장

* <도쿄 마감> 엔화 가치 약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상승 마감

엔화 가치, 전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 영향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.

DOW30	18168.45	(-0.47%)
NASDAQ	5289.66	(-0.21%)
S&P500	2150.49	(-0.50%)
NIKKEI225	16735.65	(+0.83%)
SHANGHAI	3004.70	(휴장)
FTSE100	7074.34	(+1.30%)
DAX30	10619.61	(+1.03%)
CAC40	4503.09	(+1.11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과 파운드화가 3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의 강세 분위기가 확산해 올랐다

유로/달러	1.1204	(-0.0007)
유로/엔	115.24	(+1.30)
달러/엔	102.88	(+1.25)
파운드/달러	1.27257	(-0.01082)
NDF	1116.60 / 1117.00원...8.70원 상승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달러 강세 & OPEC 회원국들의 산유량 감축 합의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5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

* <국제 금값>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증한 데 따른 달러화 강세로 급락

WTI 48.69 (-0.25%)

COMEX금 1269.70 (-3.3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2054.86 (+0.55%)

코스닥 685.88 (+0.69%)

원/달러 1107.80 (+6.50)

KTB 110.87 (-0.10)

LKTB 132.75 (-0.46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상승 마감. 도이체뱅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남. 새로운 분기를 맞아 단기자금이 일부 유입. 장기물은 지난 달 원도드레싱에 따른 금리하락 반작용으로 약세폭 심화. 美채권금리 상승도 부담 요인.

1y 1.3150% (+1.00bp)

3y 1.2760% (+2.90bp)

5y 1.2840% (+3.00bp)

10y 1.4550% (+5.70bp)

20y 1.5010% (+6.80bp)

30y 1.5050% (+6.40bp)

CD 1.3400% (0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3.35bp (+0.95bp)
2Y	-5.75bp (0.00bp)
3Y	-2.60bp (-0.40bp)
5Y	-3.15bp (-0.25bp)
10Y	-15.25bp (-2.2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도이체뱅크 우려와 美 금리 인상 가능성 선반영으로 상승 마감.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분위기.

* CRS,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장 막판에 다소 금리가 하락한 것 이외에 거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임.

*IRS 금리

1Y	1.2875% (+1.75bp)
2Y	1.2575% (+2.50bp)
3Y	1.2500% (+2.50bp)
5Y	1.2525% (+2.75bp)
7Y	1.2675% (+3.25bp)
10Y	1.3025% (+3.50bp)

1*2Y	-3.00	(+0.75bp)
2*3Y	-0.75	(-0.00bp)
2*5Y	-0.50	(+0.25bp)
3*5Y	0.25	(+0.25bp)
5*7Y	1.50	(+0.50bp)
5*10Y	5.00	(+0.75bp)

*CRS 금리

1Y	1.1600% (-0.50bp)
2Y	1.0100% (-0.50bp)

3Y	0.9600% (-1.00bp)
5Y	0.8800% (-1.00bp)
7Y	0.8200% (-1.00bp)
10Y	0.7900% (-1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- *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'연준이 당장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.'
 - "美 경제, 금리인상을 할 여건이 무르익은 상태...다음달 1~2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"
 - 올 하반기에 美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며 물가상승률도 향후 수년간 연준의 목표치인 2%를 향해 오를 것이라고 예상
- * 호주중앙은행,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.50%로 동결
 - 호주 경제, 온건한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
- * 모건스탠리 'OPEC의 11월 회의, 도하 2.0 회의처럼 아무 성과없이 무산될 가능성 있다' 경고
 - 이번 합의가 올해 나타난 첫 합의가 아니라는 점, 그리고 2014년 중반 이후 지속된 유가 약세 이후 나타난 첫 번째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
 - 지난 2월과 3월,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는 1월 수준으로 원유 생산량을 동결시키자는 데 합의 했었지만 정치적 방어벽이 최후의 세밀한 협상에 지장을 초래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.
 - 또한 이번에도 맺은 합의 역시 당시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합의 무산 가능성 있다.
- * IMF, 올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.6%포인트 내린 1.6%로 대폭 하향 조정
 - "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무역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"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 설명
 - 올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며 2017년 美 소비자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%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

[국내]

- * 피치 "한은, 내년 25bp 금리인하 후 2018년까지 동결 전망"
-

* 이주열 "가계부채 총량 크고 속도도 빨라", "저금리정책 부작용에도 1차 경로는 작동"

- "저출산·고령화. 내년 1.4분기에 심층 분석 나올 것"
- "경기회복을 정도의 확장재정인지는 고민해야"
- "美금리인상, 곧바로 韓금리인상 이어지지 않아"
- "가계부채 총량제는 시장 원리 제약...신중해야"
- "통화완화에도 다른 요인으로 소비·투자 기대 못미쳐"
- "기준금리 정책 여력 남아...금융안정 리스크 함께 고려"
- "리디노미네이션, 연구는 했지만 발전은 없다"
- "물가, 전망과 괴리...공급과 제도적 요인 때문"
- "美재무부, 환율 압박 없었다...정책수단 활용안해"
- "지준율 낮추거나 지준부리 조치 취할 상황 아니다"
- "한-일 통화스와프는 기재부 결정 따른 것"
- "저금리, 양극화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"
- "구조조정에서 고용, 경기침체 우려시 금리정책 유효할수도"
- "금통위원 기관 추천 제도 검토할 필요 있다"
- "금리인하 효과, 정부의 주문·정책 실패 평가는 곤란"

* [한은 국정감사]

- 작년 외환보유액 394조로 9.2조 수익
- 물가, 내년 상반기 중 목표 근접...유연 대응
- 中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수출 부진...경제변수 모니터링
- 한은 "국내 금융기관 외화차입 여건 양호"
- 한은 "내년 금통위 8회로 축소, 금융안정회의 4회"
- 기준금리 인하, 은행 예대금리 반영 원활...주담대는 미약
- 한은 "달러-원 환율, 미국 금리인상에 영향받아"
- 한은 "25bp 인하, GDP 0.05%p, 물가 0.03%p 상승"
- 한은 "금리조정폭 축소, 제로금리 상황 때 검토"

* 최상목 기재차관 "3분기까지 성장 목표서 안 벗어나"

* 국고 3년 0.9조 1.265% 낙찰...응찰 3.54조

* 국고채 50년물 발행 변수 '끝' 11월부터 정상발행

-
-

*

-
-

****금일 예정 지표****

[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]

한국-9월 CPI(YoY) (예상:0.8%, 이전:0.4%) / CPI(MoM) (예상:0.2%, 이전:-0.1%)

-9월 외환보유고(USD) (이전:375.46B)

미국-ADP 9월 신규고용 (예상:170K, 이전:177K)

-8월 무역수지 (예상:-40.00B, 이전:-39.50B)

-9월 서비스 PMI (예상:51.9, 이전:51.9)

-9월 복합 PMI (이전:52.0)

-8월 공장주문(MoM) (예상:-0.2%, 이전:1.9%)

-ISM 9월 비제조업 PMI (예상:53.0, 이전:51.4)

-원유재고 (이전:-1.882M)

호주-8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2%, 이전:0.0%)

독일-9월 서비스 PMI (예상:50.6, 이전:50.6)

유로존-9월 서비스 PMI (예상:52.1, 이전:52.1)

-9월 복합 PMI (예상:52.6, 이전:52.6)

-8월 소매판매 (예상:-0.3%, 이전:1.1%)

영국-9월 서비스 PMI (예상:52.0, 이전:52.9)
